



작성자:

Andrew Little, CSRIC

리서치 애널리스트

날짜: 2021년 4월

1일 주제: 테마



## Global X ETF 리서치

# 바이든 정부의 2조 달러 미국 일자리 계획과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오랫동안 기다렸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 및 미국 세금 계획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가 필요한 분야, 필요한 투자 금액 및 자금 조달 방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음 분야가 투자 대상에 포함됩니다.<sup>1</sup>

### 물적 인프라

- 교통 인프라(6,210억 달러)
- 건물, 학교 및 병원(2,500억 달러 이상)
- 인프라 재건(500억 달러)

### 에너지, 상수도 및 디지털 인프라

- 클린테크, 클린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3,000억 달러 이상)
- 상수도 시설(1,110억 달러)
- 디지털 인프라(1,000억 달러)

일부 차이는 있지만 계획의 많은 부분이 2020년 대통령 선거 공약 내용과 같이 합니다(참조: [How a Biden Presidency & COVID-19 Could Impa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위에 열거한 사항 외에도 발표에는 고령화 및 노약자 보ehr 시설(4,000억 달러), 제조업 및 소기업(3,000억 달러), 혁신 및 연구(1,800억 달러), 인력 개발(1,000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인프라 관련 투자 분야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계획의 자금 조달 방법, 실제로 어떤 법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 물적 인프라 투자

**교통:** 미국의 일자리 계획은 도로 및 교량, 대중 교통, 전기차, 승객 및 화물 철도 서비스, 항구, 상수도, 공항에 대한 투자를 통한 교통 인프라를 다룹니다. 특히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2만 마일에 이르는 고속도로, 도로 및 거리의 건설 및 보수, 파손된 1만 개의 다리 보수(1,150억 달러)
- 전기차 구매에 인센티브 부여,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의 해외로부터 미국으로의 재유치, 대중 교통 차량, 학교 버스 및 연방 차량의 대체 또는 전기화(1,740억 달러)를 통한 미국내 전기차 시장 수립 및 성장
- 버스, 철도차량, 역, 수천 마일에 달하는 선로 및 기타 관련 인프라에 대한 보수 작업, 수요 충족을 위한 대중 교통망 확대(850억 달러)
- 지지부진한 Amtrak 프로젝트 처리, 새로운 목적지 연결,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서비스 강화를 통한 승객 및 화물 철도 서비스 강화(800억 달러)



- 항구 및 수로 개선, 공항 현대화를 통한 상업용 인프라 업그레이드(420억 달러)
- 대중적인 대체 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과 과거의 투자가 경제적 경계를 만들었던 지역의 일반 교통 인프라 확대(200억 달러)

**건물, 학교 및 병원:** 물적 인프라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기타 노력에는 상업용 건물, 주택, 학교 및 병원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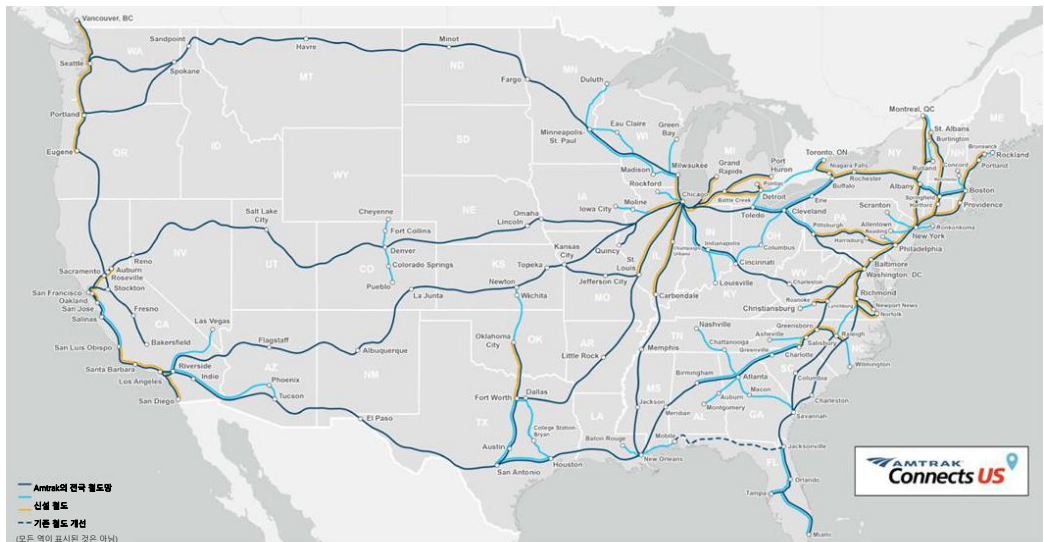
- 200만 호 이상의 고효율 전기화 주택, 중저소득 가정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신축, 개보수 및/또는 복원(2,130억 달러)
- 공립학교, 지역 대학, 어린이 돌봄센터를 기후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시설로 현대화하는 교육 인프라 개선(1,300억 달러 이상)
- 최신식의 기후 친화적인 시설 신축을 통한 보훈병원 및 연방 건물 업그레이드(최대 300억 달러)

**인프라 재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기존의 인프라와 신설 인프라가 기후 위험, 자연적인 악화 및 노후화에 대해 복원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국가 동맥에 대한 투자 분야에는 산불로부터의 보호, 해안 복원, 내구성 있는 고급 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이 포함됩니다. 전체 계획은 본질적으로 복원력이 있고 기후 친화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려면 5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견**

부적절한 교통 인프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교통 혼잡으로 인해 1,6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자동차 운전자들의 연료 손실은 1,000달러에 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35,0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1인당 유럽의 4배).<sup>2</sup> 도로, 교량, 항구 및 공항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은 비효율을 제거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체 교통 수단 제공, 기존 교통 수단의 개선, 운행 지역 확대와 같은 대중 교통의 강화는 상업을 촉진하고 경제적 참여를 향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AMTRAK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계획 발표에 맞추어 발표한 신규 노선 및 개선 노선 지도**



출처: Amtrak, 2021년.



상업용 건물, 주택 및 병원에 대한 투자에서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광범위하게 공급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계획을 통해 구조물을 현대화함으로써 그러한 구조물에서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켜 경제적 혜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학교에 대한 투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 성과를 개선하게 되면, 더 많은 개인이 차세대 고용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어린이 돌봄 및 공립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서비스 업계의 취업률을 높이고 과거에 직장을 떠나야 했거나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주요 수혜주

물적 인프라를 새로 만들거나 보강하는 데에는 아스팔트, 골재, 콘크리트, 강철 및 구리와 같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건설 제품 및 장비는 물적 인프라를 짓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 운송 회사들 역시 위에서 언급한 자재들을 인프라가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옮기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계획은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 이미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회사들에 혜택을 줄 것입니다.

### 에너지, 상수도 및 디지털 인프라

**클린테크 및 클린에너지:** 클린에너지 및 클린테크에 대한 투자는 차세대 인프라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기를 달성하고 미국에서 2050년까지 배기가스 순제로를 실현함으로써 나머지 세계를 따라 잡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이를 더욱 뒷받침합니다.<sup>3</sup> 관련 투자들 중 많은 부분이 물적 인프라 투자에 해당합니다. 건물, 가정, 학교 및 병원을 전기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것은 클린테크 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타 분야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전력망 기술 채택, 최소 20 기가와트 고전압 전력선 설치, 클린에너지 생성 및 저장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통한 전력 부문의 현대화. 여기에는 연방정부 건물에 대한 클린 에너지 구입과 버려진 유정 및 가스정 폐쇄에 집중하는 에너지 부문 일자리 창출이 포함됨(1,000억 달러).
- 다른 기술 중에서 클린에너지, 유틸리티 에너지 저장, 수소,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을 기후 과학 및 혁신의 리더로 만듦(350억 달러)
- 전기차, 충전소, 전기 난방 펌프를 연방 자금으로 구입하여 클린테크 제조업의 발전 도모(460억 달러)

**상수도:** 일자리 계획에는 식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국 상수도 인프라의 대규모 정비도 포함됩니다. 상수도 투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수를 공급하는 모든 납 파이프 및 서비스 라인을 100% 교체(450억 달러)
- 식수, 폐수 및 우수의 처리 시설 및 시스템의 보수 및 개량(560억 달러)

**디지털 인프라:** 또한 일자리 계획은 인터넷 인프라를 확장하여 전국을 차세대 고속 광대역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포함합니다(1,000억 달러).

### 우리의 의견

클린테크 및 클린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클린테크에는 클린 발전 도입과 채택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및 기술이 포함됩니다. 현대식 전력망, 유틸리티 에너지 저장 및 클린 에너지원으로 통합되는 기술 없이는



차세대 전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은 매우 제한되게 됩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는 이미 개선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700억 달러에 이릅니다.<sup>4</sup>

클린테크에 대한 투자는 클린에너지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며, 현재 부적절한 전력 인프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설치, 유지보수 및 제조에서의 일자리 기회는 물론 클린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장기적인 고용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계획에는 에너지 부문 종사자와 낙후된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만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보면, 클린에너지 및 클린테크로의 전환은 지구 온난화의 75%를 일으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sup>5</sup> 이러한 온난화의 영향에는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일으키는 반복되는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치명적인 폭염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연간 1인당 GDP가 향후 80년 동안 14%가 감소한다고 합니다.<sup>6</sup>

디지털 인프라 투자는 광대역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3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고속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sup>7</sup> 인터넷은 현대 생활, 차세대 직업 및 교육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그러한 투자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지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세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일자리 계획은 경쟁에 대한 입법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인터넷 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인터넷 비용의 감소를 통해 소비자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 및 다른 국가들에 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및 클린테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미국이 차세대 산업 및 혁신에서 리더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법칙(Wright's Law)은 누적 생산이 증가할 수록 각 단위 제조 원가는 감소한다는 함수 관계를 설명합니다.<sup>8</sup> 그러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채택이 늦은 전기차와 같은 기술의 경우, 관련 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전기차의 원가 및 판매가를 낮춰 판매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 주요 수혜주

클린에너지 및 클린테크 가치 사슬에 관련된 회사들은 일자리 계획으로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및 부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전력망, 에너지 저장, 전기화 및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다른 노력은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 그리고 재생 가능한 수소에 관련된 회사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연결 및 전기적 송신과 관련된 전기통신 장비 및 반도체 제조, 생산 업체는 디지털 인프라 지출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 역시 계획의 이러한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추가 투자

**혁신 및 연구:** 일자리 계획은 미국을 혁신 허브로 다시 만드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자리 계획은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미국을 인공지능, 생명공학, 고급 컴퓨팅 및 클린에너지 등의 리더로 만들려 합니다(1,800억 달러).

**제조업:**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산업 생산능력 모니터링 및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미국을 다시 제조업 및 안전한 공급망의 선두주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1,000억 달러). 다른 관련 노력에는 클린에너지, 의료 및 제약, 그리고 일련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총 3,000억 달러).



**인력 개발:** 일자리 계획에는 실직자 및 낙후된 지역사회에 차세대 훈련을 제공하여 그들이 클린에너지, 제조업 및 돌봄 서비스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하려는 계획이 포함됩니다(1,000억 달러).

**고령화 및 노약자 보호 시설 및 서비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고령화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4,000억 달러)

### 우리의 의견

이러한 투자는 미국이 21세기 동안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국내로 회기시킴으로써 국내 생산 및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 진보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또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급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 인프라 구축

미국 일자리 계획은 향후 8년 동안 인프라에 매년 GDP의 1%를, 다음 1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려 합니다.<sup>9</sup> 미국의 증세안(The Made in America Tax Plan)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증세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법인세를 28%로 인상
- 미국 회사에 대한 최소 세율을 21%로 올려 다국적 미국 기업의 해외 자산에 대한 수익금 면세를 방지
- 법인이 해외 세금 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
- 역외 경비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불가
- 기업의 장부상 소득에 대하여 15% 최소 세율 확정

미국 일자리 계획은 또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 건설 및 개발 자금의 조달 및 참여를 위하여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자리 계획에는 비용 절감, 토지이용제한법 변경과 같은 제한사항 제거,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미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이 포함됩니다.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득은 증세안에서 명시한 세금 증가를 훨씬 능가할 수 있습니다. S&P는 이러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2024년까지 2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5조 7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1인당 소득이 2,400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이 추정은 발표 전에 했던 분석이지만 동일한 아이디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sup>10</sup>

미국 GDP는 과거 20년 동안에 약 2% 증가하였지만 장기 평균 4%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sup>11</sup>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주간(州間) 고속도로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0억 달러였습니다. 그 이후 고속도로 시스템은 비용 1달러당 6달러 이상의 경제적 생산성을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sup>12</sup> 미국 일자리 계획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단기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계획 통과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 법안을 7월 4일까지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sup>13</sup> 지난해 정책 논의의 결과물인 미국 구조 계획(소위 코로나19 부양 패키지)과 달리 인프라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7월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휴회를 감안하면 상원이 늦여름에야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원이 노동절 이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계획의 핵심 인프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계획이 지니는 입법적 우선 순위가 높아질수록 중도 또는 진보 민주당원이 거부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 법안은 조정을 거치거나 다수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도 민주당원들이 조정은 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인 슈머는 2021년에 2차 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sup>14</sup>

1. 백악관, "팩트 시트: 미국 일자리 계획", 2021년 3월 31일.
2. 같은 출처.
3. 같은 출처.
4. Energy.gov, "흐름 통제: 내일의 전력망을 위한 차세대 전기 전자 시스템", 2016년
5. NASA, "기후 변화의 원인", 2020년 10월 27일 접속.
6. Brookings, "기후 변화의 경제학 및 기후 정책에 관한 10가지 사실", 2019년 10월 23일.
7. FCC.gov, 2021년 4월 1일 접속.
8. IEEE, "기술 개발을 예측함에 있어 라이트 법칙이 무어 법칙을 몰아내다", 2012년 7월 25일.
9. 백악관, "팩트 시트: 미국 일자리 계획", 2021년 3월 31일.
10. S&P Global, "인프라: 한 때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가 - 생산성 부양책", 2021년 4월 1일 접속.
11. Axios, "노벨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은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2021년 3월 30일.
12. ASCE, "주간(州間) 고속도로 시스템 탄생 60주년 축하", 2016년 6월 29일.
13. The New York Times,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 2조 달러 인프라 계획을 상세히 밝히다", 2021년 3월 31일.
14. Vox, "51표로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설명", 2021년 3월 29일.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데이터 센터 REIT 및 디지털 인프라 회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리스크, 무선 인프라 및 연결에 대한 수요 변화, 급속한 제품 노후화, 정부 규제, 그리고 자연 재해 및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외부 리스크의 영향을 받습니다.

클린테크 회사는 일반적으로 치열한 경쟁, 짧은 제품 수명 주기, 그리고 급속한 제품 노후화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에너지 가격과 재생 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의 변동성,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및 기타 정부 규제 및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 규제, 정치 및 기타 변화의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인프라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정부 규제, 자본 구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높은 이자 비용, 준법 및 환경 규제 변화와 관련된 비용, 경제 둔화 및 과잉 생산능력, 기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경쟁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 투자에는 통화 가치의 불리한 변동, 일반회계원칙의 차이, 또는 다른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자본 손실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에 대한 투자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에너지 부문의 회사들이 발행한 증권의 가치는 많은 이유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에너지 가격의 변화, 국제 정치, 에너지 보존, 탐사 프로젝트의 성공, 자연 재난 또는 기타 재해, 환율의 변동, 이자율, 경제 여건,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세금 및 기타 정부 규제 정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 투자에는 통화 가치의 불리한 변동, 일반회계원칙의 차이, 또는 다른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자본 손실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신흥시장에는

동일한 요인뿐만 아니라 변동성의 증가 및 낮은 거래량과 관련된 고도의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